

서성수 국어 3주-4/ 읽기 자료

1. 'A로서의 B'

'공정으로서의 정의'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A로서의 B의 형식으로 등장한다면

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지

공정이 정의로운 특성을 가지는 것인지 혹은 정의가 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헛갈리기 딱 쉬워요. 만약 두 A와B가 유사하다면 더욱 더 헛갈리기 쉽겠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때는 B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줘요.

즉 B가 A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면 정의가 공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시를 한 번 봅시다.

EX) 고등학교 고전- 정의론

질서정연한 사회란 사회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다. 모든 사람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여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 제도들은 이 원리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합의를 통해 원칙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정의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는 이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 지는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적 상태는 관념적인 상황이다. 실재하지 않는 상황인 이 원초적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선천적 능력 더 나아가 심리적인 경향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의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 간다.//

〈독해〉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3주-4/ 읽기 자료

전체 주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출되는 방식과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첫 문단에서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정의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리

마지막 문단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출 되는 배경이에요

또 집중해야 하는 세부 정보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정의- 사회 성원들의 선을 증진&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A)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의-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의(+B)

같은 정의들이 있었어요

〈설명& 어려운 구조 한번만 읽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합의에 인해서 만들어 지게 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의 상황은 실재하지는 않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이 상황 안에서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그 무엇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가 공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CF) 평등, 형평, 공평, 공정(결과의 평등↔과정의 평등)

평등, 형평, 공평, 공정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4가지 용어는 주로 배분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얼마큼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지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평등에서 공정으로 갈수록 타당한 차이가 인정되는데 타당한 차이란 합당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차이로 쉽게 정리하면 결과적 차이입니다.

평등은 주로 동등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며 무조건적인 평등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형평과 공평은 우리가 보는 글에서는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로 쓰여요. 공정은 출발선의 평등을 이야기 하며 경쟁의 기회와 조건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평이 결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 이라면 공정은 과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러한 공평과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개념입니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3주-4/ 읽기 자료

또 '뫼토스로서의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도 이해해봅시다.

EX) 종교적 의례는 기본적으로 뫼토스적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참과 거짓 그리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례에서 인간은 초자연적인 신과 그 신이 행한 행위와 직면하고 그 신에 의해 성화되는 시간으로 회기 한다. 이때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논리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정지되고 신의 창조행위 시간 그리고 신만이 존재했던 원초적 시간이 드러난다. 이 시간은 참과 거짓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믿음을 요구한다.//

〈독해〉

주제는 '종교적 의례의 뫼토스적 성질'이에요.

〈설명& 어려운 구조 한번만 보기!〉

뫼토스적 종교에서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신의 시간 신의 논리가 드러나며 이 신의 논리는 참과 거짓의 뛰어넘는 그 자체이며 믿음을 요구하게 돼요. 이런 뫼토스적 시간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이성과 참 거짓을 판단하는 논리는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해요.

신화적이고 성스러운 이 뫼토스적 시간에서는 인간의 시간은 중단되고 신에 의해 성화된 시간, 신의 창조 행위의 시간, 원초적 시간이 전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뫼토스로서의 종교적 의례에서 종교적 의례가 뫼토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CF) 뫼토스- 신화. 믿음이 필요// 로고스- 철학. 논증으로 참과 거짓에 대한 이성적 탐구 필요

신화를 일컫는 그리스어 뫼토스란 사람의 이야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극의 소재나 희극의 줄거리는 물론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주제도 뫼토스가 된다. 그런데 이 뫼토스는 '로고스'에 대립하는 어휘이다. 그것은 공상과 이성으로,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과 논증하는 말로 대립한다. 그래서 뫼토스와 로고스는 말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양자 다 같이 정신 생활의 기본적 기능이다. 논증으로서의 로고스는 설득을 목표로 하며 듣는 자의 판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로고스는 올바르게 논리적인 경우에는 진실로 판명되지만 오류가 드러날 경우에는 허위가 된다. 그러나 뫼토스는 오로지 뫼토스 외에 아무 목적도 없다.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다. 그것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감성을 자극하여서든, 이성을 자극해서든, 아니면 아름답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3주-4/ 읽기 자료

나 혹은 사실처럼 생각되든. 아니면 그저 믿어보고 싶어서 믿는 이야기일 뿐이다.

+종교인에게 말씀이란?

2.'A는 B를 함의한다'

같은 논리적 관계를 보이는 서술로

A이면 B이다

A는 B의 충분 조건이다

B는 A의 필요 조건이다

B는 A에 함의된다가 있어요

모두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는 특수성이 배제된 이론의 실패를 함의한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를 특수성이 배제된 이론의 실패의 하위 내용 혹은 구체적 사례로 이해해줘야 해요.

EX) 인식론이 지닌 주관과 객관의 구분은 단순히 그 자체의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재와 현상, 실천과 이론, 육체와 마음 등의 근대적 이원론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 근대적 사고에 대한 비판은 이 이런 이원론의 고리를 끊거나 해체하는 과정을 함의한다.

하지만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식론에 대한 반성 하나로는 부족하다. 과연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를 벗어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브렌타노이며 그 개념은 지향성이다.//

<독해>

주제는 서양 근대 철학이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첫 문단은 이원론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의 근대적 사고 비판과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3주-4/ 읽기 자료

두 번째 문단은 이분법의 극복을 위한 지향성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설명&어려운 구조 한번 더 확인하기!>

'근대적 사고에 대한 비판은 이 이런 이원론의 고리를 끊거나 해체하는 과정을 함의한다.'이라는 말을 "이원론적 고리를 끊고 해체하는 행위의 하나의 예시나 방법으로 근대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 있다"로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 인식론만으로는 이원론을 극복하기 힘들니 여기에 추가적인 지향성의 개념을 설명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CF) 함의한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A이면 B이다에서 A는 충분조건 B는 필요조건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바라보자면

A의 진리 집합이 B의 진리집합보다 작아야 해요.

초콜릿을 먹으면 당이 높아진다는 명제 에서

당이 높아지는 다양한 원인 중 초콜릿을 먹는 것은 하나일 뿐이에요.(기억하기)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다른 명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어렵게 정리해봅시다.

분필을 손에서 놓은 뒤 분필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명제에서

분필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분필을 손에서 놓아야 해요.

손에서 놓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중력 방향 등의 조건이 따라 붙어야 아래로 떨어져요.

이런 경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읽기만 하기!)

바른 국어 다른 결과